

나무와 인류의 진화

인류 진화의 결과로 사람이 배를 내놓고 걸어 다니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동물은 거의 모두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노출을 최소로 하기 위해 머리와 발과 같은 공격 부위만 드러낸다. 사람보다 더 강한 사자나 호랑이도 그렇다. 그런데 사람은 가장 취약한 배를 내놓고 활보한다. 사람들이 대담하게 이럴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진화 덕분인데, 이런 진화에는 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인류는 직립하면서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었고, 더 넓은 시야로 경관을 가로질러 다른 생물을 관찰하기 쉬웠으며, 나아가 다양한 도구를 만들고 다루면서 두뇌도 더 발달하였다고 한다. 사람은 배를 내놓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좋은 도구와 더 발달한 두뇌로 더 체계적인 사회를 이루어 다른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어 배를 내놓고 활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 배를 당당하게 내놓고 살아가는 점에서는 나무도 마찬가지다. 숲을 이룬 나무는 배를 내놓고도 위로만 솟는다. 나무도 초원에서 혼자 자랄 때는 가시를 만들어 방어하는 전략을 도모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크게 자라 그늘을 드리워 여러 동물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보호받는 전략을 모색한다. 나무들이 방어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공생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젖힘으로써 더 다양하게 진화했듯이, 인류도 노출이라는 약점을 적당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도구 발명과 두뇌 발달이라는 아예 다른 세상을 열어젖힘으로써 더 강해졌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이 특별하다고 만물의 영장이라 우쭐대지만,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정신도 자연과 더욱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인류 정신의 속성에 포유류와 파충류의 특성이 단계별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심지어 무척추동물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것

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연을 이용만 하는 존재가 아닌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하지만 나무는 이런 진화단계의 연결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작용도 하여 '인간성'이 발달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무에 기인한 인류의 진화

최초의 인류 계통이 유인원과 분리되어 진화된 시기는 500만~1천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평균해서 일반적으로 75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가장 큰 특징으로 이때부터 인류의 조상이 직립보행을 했다는 것을 꼽는다. 하지만 초기 인류가 두 발로 걸었기 때문에 양손이 자유로웠다고 해도, 돌로 도구를 만들어 쓰는 일과 두뇌 용량이 대폭 증가된 것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250만 년 전부터였다고 한다. 우리가 그 강도를 내세워 석기시대, 철기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석기와 철기의 도구를 만들 때도 나무가 더 많이 쓰인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유적지 발굴 보고서에도 나무 도구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 우리가 인류를 만물의 영장이라 우쭐대는 과잉과 비슷하게 석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 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곧잘 잊어버린다. 더구나 초기 인류가 750만 년 전에 출현하여 250만 년 전에 돌을 도구로 쓰는 방법을 알기까지 500만 년 동안 나무를 쓰면서 응축시켰을 지능 발달의 탄력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의식주는 대부분 나무가 서 있는 들판에서 구했을 것이다. 석기도 없던 500만 년 동안, 의식주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나무를 활용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 기둥의 배치와 집의 구조를 가상적으로 그리며, 달력도 없이 잎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를 예측하던 인류는 그야말로 나무와 혼연일체



글_신준한

국립수목원장

kecology@forest.go.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임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부장, 산림 보전부장 등을 지냈다.



가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만졌으면 석기, 철기 시대를 지나고 다양한 재료가 넘치는 지금도 나뭇결을 쓰다듬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그뿐만 아니다. 나무로 가리고 막고 나무 뒤에 숨어서 적이나 맹수를 피하며 나무 그늘에 쉬던 기억은 우리 마을의 입구에 정자목을 심거나 숲을 만드는 전통을 영글게 하였다.

나무는 화력도 좋고 오래가기 때문에 불을 피우기에도 좋다. 처음에는 그냥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적과 맹수를 방어하다가 나무에 불을 붙여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종족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나무로 피운 모닥불은 어둠과 맹수의 두려움 덜어주고 따뜻함을 더해주어 사람을 모아 사회성을 강화 시킴으로써 인간성을 양양시키고 지능발달을 촉진했을 것이다. 불에 익힌 음식은 소화흡수가 잘 되어 생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두뇌발달에도 좋다고 하니 인류는 점점 더 지능이 발달하고 인간성이 풍부해지며 사회성이 고양되었을 것이다.

나무가 인류 진화에 현저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높은 세계로의 상승 및 초월을 느끼게 하여 정신을 고양시킨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수많은 시에 나오듯이 나무는 미약한 나를 상승시켜 부조리한 현세를 초월하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우뚝 선 생물은 사람과 나무밖에 없다.'는 말로 나무를 닮아서 크게 되리는 영감을 고취시키는 말도 있다. 어떤 종교가는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고 싶어서 그렇다는 말을 한다. 이런 정감은 세계를 설계할 때 나무를 기준으로 삼게 한다. 이런 현상은 신단수와 같이 신화에서 먼저 나타나지만 현대과학에서도 지리학이나 생물학의 수지상(樹枝狀)이라는 말이나 분류학이나 진화론의 계통수(系統樹)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이 이념으로 고착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질 들뢰즈는 위계적 중심의식을 고취하는 나무를 경계하고 소통과 연계의식의 리즘(rhizome)을 창도한다. 이런 움직임은 인류 정신사에 또 다른 이정표지만 나무도 무수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 나뭇가지와 잎의 별음은 사람의 허파꽈리와 닮았다.

나무를 보면서 배우는 인류의 미래

사람의 허파도 나무를 닮았다. 가지를 계속 뻗으면서 물질을 분배하고 거둬들이는 체계는 여러 곳으로 많은 양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생물계의 연결망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나무는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섬세하게 연결된 관다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핏줄도 이렇게 진화했는데 특히 허파꽈리는 나뭇잎과 가지와 매우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나무에서는 잎과 뿌리가 체관과 물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태양에너지가 물질을 이동시킨다면 사람은 동맥과 정맥 체계로 나뉘어져 있어 스스로 심장을 박동시키면서 물질을 이동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인류는 앞으로 진화를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할까? 인간 사회의 전통 마을의 길도 나무줄기와 가지처럼 뻗어 있다. '가지 않은 길'이란 프로스트의 시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가지 않은 길에 미련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지나 온 길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새로운 세상을 일궈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사실 알고 보면 가지 않은 길 말고도 온 길에도 가지 못한 길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나 온 길에서도 하지 못한 일, 하다가 그만 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무의 물관은 매년 나이테로 변하고, 체관은 죽어서 나무껍질이 되며, 사람의 동맥과 정맥의 죽은 조직은 배설되고 새 조직이 다시 살아나 늘 새로운 체계가 된다. 우리 정신도 늘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 한다. 생물 진화를 보면 변하지 않고 적응하지 않으면 멸종하게 되어있다.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가지 못한 길에 집착하거나 남보다 우월하기 위해 악성을 쌓기보다는 서로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일궈내야 한다. 사람이나 나무나 배를 내놓고 서 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약하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

사람도 나무와 같은 식물이 생산해준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은 나무와 연결되어야만 살아낼 수 있다. 사람의 날숨과 나무의 들숨, 나무의 날숨과 사람의 들숨은 서로 연결되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류는 다른 생물과 공생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 나무는 강하면 강한대로, 연하면 연한대로 다 쓸모가 있다. 그대로 써주질 못해서 강한 탓, 약한 탓을 하는 것이지 이들이 같이 있어야 어울린다. 이것이 조화이고 그러니까 세상이다. 이제 인류는 나무나 석기, 철기의 서열을 매기기보다는, 세상 만물이 다 어울리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새로운 생태계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ST